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1주기를이틀앞둔27일오후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광주·전남시민추모대회.유가족들이진상규명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

/뉴스

## 제주항공 참사 1주기 “국정조사 마지막 희망”

광주서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국회의원·지자체장 안전서약서 서명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두고 광주에서 시민 주도 추모대회가 열렸다.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진상규명에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참사 1주기 광주·전남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대회에는 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자체장,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대회를 통해 유가족들은 책임있는 진상규명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며 거듭 연대를 호소했다.

법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더라도 완전한 독립 없는 진상규명에 차질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국가의 책임이 걸린 사안으로 조사할 각오를 물으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경찰과 사조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금 국정조사만이 이 책임을 가르는 마지막 제도적 기회”라며 “1년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참사(진상규명)의 출발점은 전면적 자료공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며 “끝까지 진상을 규

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모든 분들이 함께달라”고 연대를 호소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도 연대 발언을 통해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의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는 “재난은 사람의 선택과 구조의 실패로 만들어진다. 실패의 대가는 늘 약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진다”며 “현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원인과 미뤄지는 책임, 숫자로만 남은 희생자들로 기억된다”고 꼬집었다.

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 돼서는 안된다. 제주항공 참사 또한 철저한 독립적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주체에 대한 분명한 처벌, 유가족의 목소리가 조사와 제도 개선의 중심에 설 것과

국가·사회가 모든 과정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피해가 이제 하나의 고정적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다. 연대와 지지 대신 의심과 비난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때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책임자를 명확히 처벌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대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진상규명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 등을 약속하는 안전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부

## 영암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24번째 발생... 계열사 오리농장 일제검사 24시간 이동중지  
 대설·한파 대비 내달 5일까지 위험주의보 발령... 차단 총력

27일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정부가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남 영암군 소재 약 3만3000마리 규모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이번 동절기 기준 24번째 발생이다.

지금까지 동절기 가금농장 확진 현황을 보면 경기 9건, 충북 4건, 충남 4건, 전북 2건, 전남 4건, 광주 1건 등 총 24건이다. 야생조류에서는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부산·광주·서울 등에서 총 22건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과 발생 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시설에 대해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2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에 있는 가금농장 41곳과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 69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발생 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 농장 91곳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 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같은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 농장 가운데 방역 취약 농장 49곳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기온 급감으로 소독 등 방역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중수본은 대설·한파에 대비한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발령하고 소독시설 동파 방지 등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교육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에서 농장과 시설, 차량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해 전파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전면 파업... “생산 차질 없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사측의 기술적 노동자 대상 임금 수단·격려금 지급 차별을 주장하면서 전면 파업에 나섰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전국급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8시간 동안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단체협약 등의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으며 10여 차례 부분 파업에 나서왔지만 전면 파업은 처음이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격려금 지급과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차량을 직

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4년 근속 후 대리 승진 시 월 40만원의 인상받지만, 기술직은 23년에 걸쳐 승진을 이어가도 월 18만원 인상에 그친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가 일반적인 승진 제도에 대해 마치 새로 만들어져 직종차 임금차이가 벌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금 수단 체계는 기술직과 일반직 모두에게 실질적인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GGM 관계자는 “노조원 138명이 파업에 참여했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 사무직 직원들이 투입돼 생산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